

복잡해진 수 싸움... 추석 호남민심 잡은 후보가 승리

뉴스초점 -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5일 서울에서 예정된 마지막 순회경선은 10월10일로 미뤄지게 됐다. 이때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 결선투표에서 선출된다. 지역별 경선 일정은 9월4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이 9월25일, 전북이 9월 26일 치러진다.

경선 일정이 미뤄진 만큼 전체적인 판세 및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경선 일정 연기는 선두를 수성해야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후보 주자들에게는 따라잡

5주 연기 10월 10일 확정 ... 추석 직후 광주·전남 경선이 '분수령' 이재명 '수성'·이낙연 '추격' 총력전 ... 후보 연대·단일화도 관심

을 시간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추격의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선두로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꼭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선 기간이 길어진 만큼, 수성과 추격 구도를 흔들기 위한 각 후보자들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이낙연 후보간의 선두 다툼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실제로 19일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턱 밑까지 따라붙었다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나오면서 두 후보 사이의 긴장감은 한층 팽팽해졌다.

이낙연 후보 측은 '골든 크로스'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총력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격적 방어'로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가 가열되면서 전체적인 경선 분위기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양강구도를 깨

트리기 위한 추격 후보들이 사안별로 상호 연대나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반명 연대' (반이재명 연대)였던 구도가 '반락연대' (반이낙연 연대)까지 겹치면서 후보들 간의 물고 물리는 혼전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3위권 내에 들기 위한 후보 주자들의 경쟁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세균 후보가 얼마나 치고 올라오느냐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후보 주자들 가운데 지역별 경선 이전,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부를 거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차 슈퍼워킹 직후 발표되는 광주·전남·전북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전체적인 판세를 가른다

는 점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정세균 후보가 19일, 박용진 후보가 21일 광주를 방문하는 등 민주당 주자들의 호남 방문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호남 민심은 아직까지 특정 후보로 결집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 정권재창출 경쟁력을 놓고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후보 진영에서 밀어붙이는 선거인단도 결국 전체적인 판세와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후보들의 경쟁전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TV 토론 과정 등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정권 재창출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후보가 민심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서 실종

고흥출신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8000m급 14좌 완등 후 하산길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고흥 출신 김홍빈(57) 대장이 8000m급 히말라야 등정 도중 16년 만에 브로드피크 정상에 오르며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 대장은 안타깝게도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관련 기사 2면>

19일 아시아산악연맹에 따르면 김 대장은 18일 오후 6시께(현지시간)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7700~7800m 인근 크레바스에 빠졌다가 구조 도중 주마(등강기)가 헐거워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2021 김홍빈의 브로드피크 원정대"는 "지난 18일 김 대장이 등정 성공 후 정상 부근에서 캠프4로 하산하던 중 앞서던 외국 원정대 소속 산악인으로 프에 걸려 길이 막히자 우회로를 찾는 과정에서 크레바스(Crevasse)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원정대는 수색대를 꾸려 김 대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나 중국측 영토라 난향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2번째로 높은 고도 8047m에 달하는 브로드피크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경계에 걸쳐 있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이며 세계에서는 44번째, 한국에서는 7번째 히말라야 완등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대장이 이끄는 브로드피크 원정대는 현지시간 18일 오후 4시 58분(한국 시간 오후 8시 58분) 파키스탄 히말라야의 브로드피크(Broad-Peak·8047m) 등정에 성공했다.

등정길에는 정득채 대원 외에 고소 포터들이 함께 했지만 정상에는 김 대장 단독으로 올랐다.

김 대장은 베이스캠프에 등정 성공을 알리는 무



김홍빈 대장

전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장애인 김홍빈도 할 수 있으니 모두들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왔다고 원정대는 전했다.

김홍빈 대장과 유재강(등반대장), 정우연(장비·식량), 정득채(수송·포장)으로 구성된 브로드피크 원정대는 지난 6월 14일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약 15일간의 카라만 이동 후 발트르 빙하지대인 콩고르디아에 베이스캠프(4850m)를 차렸다.

약 2주 동안 고도별로 캠프를 구축하며 정상 공략의 기회를 엿보던 원정대는 지난 14일 새벽2시 등정길에 올랐다.

캠프1(5800m)를 넘어 11시간여가 지난 오후 1시 30분께 캠프2(6400m)에 도착한 원정대는 거센 바람을 동반한 기상악화로 이틀간 캠프 2에

서 보냈다.

16일 바람이 잦아들어 캠프3(7100m) 진출에 성공했지만 17일 캠프4 구축 예정지인 7500m에 형성된 크레바스(crevasse·빙하 사이의 깊은 폭)인해 7200m 지점에 텐트를 설치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원정대는 같은 날 저녁 11시(한국시간 18일 오전 3시) 정상을 향해 출발했지만 7700m 지점에서 또다른 크레바스가 확인돼 건너는데 애를 먹었다.

이후 칼날처럼 이어진 1.8여 km의 서쪽 능선을 통해 세계 제12번째로 높은 고도 8047m의 브로드피크에 올라섰다. 캠프4를 나선지 18시간여 만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19 젊은층 위주 확산 전남도, 휴가철 방역 '비상'

주말 휴일(17~18일) 이틀 동안 전남에서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틀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88%가 20~30대로 나타나 이틀 연령층에 대한 방역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13일째 1000명을 넘어서고,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한데 따른 정부 방침에 맞춰 8월 1일까지 2주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등은 제한 인원에서 제외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11명, 18일 16명, 19일 오후 5시 현재 7명의 신규 확진자도 내에서 발생했다. 일요일인 18일 확진자는 지역별로 여수 7명, 나주 6명, 순천·화순·강진 각 1명이다.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 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순천·화순·강진 확진자는 감염경로 미상으로 분류됐다. 토요일인 17일에는 도내에서 11명이 확진됐으며 지역별로 여수 5명, 순천 3명, 광양 3명, 목포 1명 등이다.

문제는 주말 27명의 확진자 중 24명이 30대 이하로 88%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무증상에 활동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8일 확진자 16명의 경우 10대 1명, 20대 10명, 30대 4명, 60대 1명으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대 이하이다. 17일 확진자 11명은 10대 이하 3명, 20대 3명, 30대 3명, 40대 2명으로 30대 이하가 9명이

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의 신규 확진이 이처럼 많아진 것은 예방백신 접종이 고령층에 집중됐고 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은 층의 이동과 접촉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오후 도청 브리핑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 중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40%를 차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반드시 지켜달라"며 "다만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등은 제한 인원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대상임에도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선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준수 내용은 ▲최근 전국적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운영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경로당은 2차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문판매 등 외부인의 출입과 식사는 금지 ▲종교시설 허용 인원은 종전대로 50% 유지하되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뿔난 시민들 "이젠 경찰에 고소 안 해요"	▶6면
대·한국 올림픽 선수단 도쿄 입성	▶18면
굿모닝 예향 - 금관악기 '브라스 앙상블'	▶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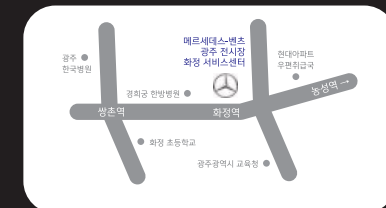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A

This is for a new gen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1. 차량 서비스센터 (06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 (북진동)
2. MB 인문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 광주광역시 서구 광명로 516 (수원동)
3.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동대로 603 (남동) | 201 (소문동)
4. 주안 서비스센터 (062)941-009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동대로 520 (수원동)

정부 지원 표준 연비 및 용량
EQA 250 4Matic 복합 연비(전기/하이브리드) 4.1 (도시: 4.3,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306,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